숲길을 걸으며 '들숨' '날숨' … 그리고 '잠깐 멈춤'의 명상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천년사찰 힐링숲길 걷기명상

여태동 지음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법정스님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순천 송광사 불일암으로 가는 대숲 길 초입에 적힌 팻말이다. 나무관도 없이 평소 입었던 가사를 입고 저 너머의 세계로 떠났던 법정스님. 불일암에는 법정 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스님이 가시고 난 후 상좌스님이 머물며 가풍을 잇고 있다.

법정 스님이 앉았던 의자는 비어 있고 나무 아래 '법정 스님 계시는 곳'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다. 다비식이 끝나고 후박나무 아래 스님의 유골을 이곳에 묻었다.

불일암 앞에는 감나무가 몇 그루 있다. 계절에 따라 감꽃이 피고 감이 열리고 붉은 홍시도 보게 된다. '무소유 숲길'이라고 명명된 일대는 고즈넉하며 다양한 식물과 나무들이 에둘러 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생전 법정 스님이 남겼던 주옥같은 말들이 떠오른다.

스님은 '산에는 꽃이 피네'에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며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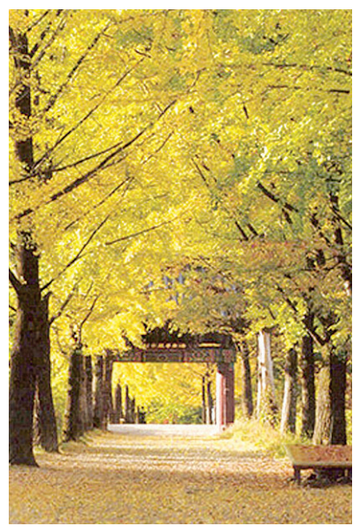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 우리네 사찰을 찾아가면 무성하면서도 아늑한 치유의 숲길을 만날 수 있다. 불교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태동이 펴낸 '천년사찰 힐링숲길 걷기명상'은 22곳의 사찰 숲길을 담고 있다. 저자는 법정 스님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숲과 문학 치유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국의 사찰 숲을 걸으며 그때그때 떠오르는 단상을 책에 담았다. 10여 년 전 전국 사찰의 숲길을 걸으며 사유했던 글들을 '불교신문'에 실었다. 이후 다시 숲길을 찾아 '한 걸음에 숨을 들이키고 한 걸음에 숨을 내쉬는' 호흡도 병행하며 관조와 성찰의 마음을 담았다. 초기불전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경'을 음미하며 부처의 가르침도 마음에 새기기도 했다.

백련사 동백숲길은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 이름을 올릴 만큼 멋스럽고 고즈넉한 길이다. 이 길은 다산 정약용이 귀향 시절 한때 기거했던 다산초당과도 이어지는 길이다. 숲길을 걷다 보면 작은 새들이 마중하듯 반갑게 맞아주는데 나무마다 새들이 깃들어 있는 느낌을 준다.

남양주 '봉선사'

정읍 '내장사'



영주 '부석사'

강화 '전등사'

백련사 뒤편으로 이어지는 대략 1km 가량의 숲길은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비자나무가 군락을 이룬다. 오랜 세월만큼이나 나무들에서는 성성한 기품이 배어나온다. 겨울철 이 숲길의 묘미는 명성 그대로 동백군락이다. 바람결에 통째로 떨어지는 동백꽃은 장엄하면서도 애처롭기 그지없다.

숲길에는 백련사 혜장 스님과 다산초당 정약용의 도타운 인연도 드리워져 있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자신보다 비록 나이는 적지만 법력이 있었던 혜장 스님에 감응해 사상적 교류를 이어갔다. 혜장 스님은 유학을 배우고, 다산은 선과 차를 배웠다. 동백숲길이 아름다운 것은 두 성현의 교분을 매개로 사상, 학문,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영국 여왕이 방한했을 당시 가장 한국적인 건물을 보고 싶어 했다. 국내 최고 목조건물인 극락전이 있던 안동 봉정사가 선택됐다. 여황은 만세루의 법고를 둘러보며 연신 '원더풀'을 쏟아냈다.

봉정사는 봉황(鳳)이 머무는 정자(停)라는 의미가 투영돼 있다. 입구는 말 그대로 봉황이 날아들 법한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룬다. 고찰이 자리한 천등산 자락은 녹음이 무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매표소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길은 굵은 소나무들이 키를 높이고 있어 걷는 내내 위로와 힐링을 안겨준다.

특히 푸르른 녹음이 절정을 이루는 여름에 가 볼 만한 숲길로는 부여 무량사 설잠스님길을 비롯해 공주 마곡사 백범 명상길, 김천 직지사 직지숲길, 강화 정수사 함허 대사길이 있다.

〈시간여행·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호후전 1,2,3

진침 지음, 이상 옮김

'삼국지연의', '서유기', '금병매'와 함께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인정받는 중국의 고전소설 '수호전'. 중국대륙에서 '수호전'의 인기는 '삼국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당대 중국 민중의 애환과 현실을 날것 그대로 담아낸 '수호전'은 서민적 정서와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권력에 맞서는 민중 영웅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공감과 울림을 준다. 무엇보다 원작 소설들에 비해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여타 중국의 고전소설 속편과 달리 수호전의 속편 '수호후전'은 세계 학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기도 하다.

청나라의 진침이 쓴 원작 '수호후전'을 국내 최초로 완역한 소설 '수호후전'(전3권)이 출간됐다. '수호전'의 속편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작품으로, 조정에 귀순한 양산박의 영웅호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30여 명은 여전히 간신들의 박해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은 저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다시 등운산과 음마천에 거점을 마련하고 양산박 수군 총수였던 이준과 그의 의형제들은 태호 소하만에서 봉기했다. 힘의 열세에 밀린 이준은 섬라국에 자신들의 기반을 마련하고 금나라군과 부역자들에 맞서 싸우던 다른 형제들도 마침내 이준과 합류한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중국을 넘어 고려, 일본, 섬라로 뻗어나가는 장대한 스케일이 특징이다. 전체 이야기의 삼분의 일 이상이 중국 밖에서 펼쳐진다.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태의 안도전이 고려에 가서 고려 왕의 병을 치료하고 돌아오거나 고려 왕과 섬라 왕이 결의형제를 맺는 장면도 등장한다.

〈가갸날·전3권 4만9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긱 웨이

앤드루 맥아피 지음, 이한음 옮김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기업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소파에 기대 일하거나 재택근무가 일상인 환경, 정장이 아닌 개성 있는 옷차림의 직원들. 이른바 '긱(Geek)'이라 불리는 이들이 주도하는 기업 문화다. 과거에는 '괴짜'나 '공부벌레'를 의미했던 긱은 이제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비효율에 도전하는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다면 기업의 성패는 긱의 존재 유무로 결정되는 걸까?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있다. 정보경제학 전문가이자 경영사상가인 앤드루 맥아피가 펴낸 '긱 웨이(Geek Way)'는 조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책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공유하는 4가지 핵심 규범(과학, 주인의식, 속도, 개방성)을 중심으로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혁신을 견인하는지를 분석한다.

구글은 디자인조차도 데이터와 실험을 통해 결정한다. 넷플릭스는 직원에게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플래닛랩스는 빠른 실행과 반복을 통해 나사의 1000분의 1 비용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다. 이들은 실수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스스로를 교정하는 조직을 지향한다.

저자는 이 규범들이 단지 기업 전략이 아니라, 사람들이 협업하고 성장하는 방식의 진화라고 말한다. 겉모습이 아닌, 규범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성과를 이끈다는 것이다. 혁신은 기술보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조직에 필요한 것은 '긱'의 호기심과 실행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다. 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조직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림출판·2만5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신삼국지

tvN STORY '신삼국지' 제작팀 지음

불타는 적벽,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 거세게 불어오는 동남풍. 후한 말 중국을 배경으로 한 '삼국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는 고전이다. 모략과 지략, 의리와 배신이 뒤섞인 치열한 서사는 시대를 넘어 오늘의 독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은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일은 쉽지 않다. 1000여명이 넘는 등장인물과 수백 번의 전투, 생소한 한자 이름들이 진입장벽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tvN STORY 제작진이 펴낸 책 '신삼국지'는 그 높은 벽을 넘기 위한 새로운 입문서다. 삼국지 콘텐츠로 유튜브 누적 조회 수 2400만을 기록한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이 스토리텔러로 참여했다.

예능으로 먼저 알려진 이 시리즈는 삼국지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중심으로 핵심 스토리를 재구성한다. 도원결의, 관도대전, 적벽대전 등 익숙한 사건들의 배경과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여포는 별점 반 개짜리"라는 등 침착맨 특유의 재치 있는 비유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반골', '오관참장', '천하삼분지계' 같은 고사성어의 유래도 자연스럽게 설명되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침착맨의 일러스트로 구성된 인물 관계도는 복잡한 흐름을 정리해주고,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원고와 전문가 감수, 삽화 자료가 더해져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삼국지는 단지 오래된 옛이야기가 아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 신뢰를 지키는 자세, 함께 싸우는 동지의 의미 등 지금의 삶에 응용 가능한 통찰이 곳곳에 있다.

〈프런트페이지·2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